

기후변화 대응, 수산·양식의 미래를 논하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 -
- 기후변화 대응 실효성 있는 수산·양식분야 대책 마련 지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일(금)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구, 대기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강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와 어획량 감소 등 우리 어민들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 피해 상황을 전문가들과 공유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수산·양식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가 연내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수산·양식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대책에 꼼꼼히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태훈	(044-200-5510)
		담당자	사무관	정범기	(044-200-5514)